

韓國의 人口移動 패턴變化와 首都圈의 人口移動

崔 鎮 昊*

《目 次》	
I. 서 론	IV. 요약 및 결론
II.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V. 맺 음 말
III. 1985-90 인구이동 분석	

I. 서 론

그 동안 우리 나라 도시화의 진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전국적인 인구분포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한 인구이동은 최근 들어서는 대도시권의 형성과 함께 조금씩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로서는 서울이 이제는 순이동에서 - 를 보여 인구이동에 의해서는 오히려 인구를 빼앗기고 있으며,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들이 권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서울보다도 많은 인구를 지역내에서 흡수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집중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60-70년 기간 중에 수도권은 전국에서 증가한 인구의 57.2%를 흡수했으나 70년대에는 73.6%로 증가했고 최근 85-90년에는 93.4%를 기록해 신규로 증가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통계청, 1993).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었던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1960-90년의 30년 동안의 우리 나라 전국의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에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이동을 분석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 亞洲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II.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1) 우리 나라의 인구이동 추이

<표-1>은 지난 20년간의 우리 나라 인구이동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1970, 80, 90년 센서스의 5년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이동을 정리한 표이다. 우선 표에서 보면 센서스 실시전 5년간의 총이동자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65-70년 5년간의 총이동자수는 약 440만명이었으

나 75-80년에는 766만으로, 그리고 최근 5년간인 85-90년 기간 중에는 988만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각 센서스 실시전 5년간의 이동율을 계산해 보면 (이 때 이동율은 5세이상 인구에 대한 이동자의 비율을 말함) 1965-70년에는 16.2%였던 것이 75-80년에는 22.8%, 그리고 85-90년에는 24.6%로서 최근 5년간 우리 나라 5세이상 국민 4명중 1명은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매우 높은 이동성향을 보여준다.

<표-1> 우리 나라 인구이동 추이

	총이동자수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	기타이동	이동율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70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80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90	9,876 (100.0)	4,380 (44.3)	5,442 (55.1)	54 (0.5)	24.6	10.9	13.6

자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80, 1990.

한편 이들 이동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해서 전체이동 중에서 지역내 이동과 지역간 이동의 비율을 보면 1975-80년 기간 중에만 시·도내 이동이 시·도간 이동보다 많았고 나머지 65-70, 85-90기간 중에는 시·도간 이동이 약간 더 비중이 높다. 일반적으로 사회내의 인구이동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산업 경제구조 및 공간구조가 변하면서 이동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이후에 인구이동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인구이동 추세를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전국을 도시-농촌으로 나누어서 그 이동의 방향을 보면 <표-2>와 같다. 이때 도시는 행정구역상의 시를 의미한다. 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는 우선 과거 60년대에는 농촌 → 도시로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흐름이 최근에는 도시 →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1965-70년의 경우 이동의 방향을 보면 농촌 → 도시가 5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75-80년에는 51.6%, 그리고 85-90년에는 33.4%로 특히 80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2) 도시 - 농촌간 인구이동

<표-2>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단위 : 천명, %)		
	1965-70	1975-80	1985-90
농촌 → 도시	1,844(57.8)	2,524(51.6)	2,329(33.4)
도시 → 도시	670(21.0)	1,415(28.9)	3,527(50.6)
도시 → 농촌	378(11.9)	181(13.9)	743(10.7)
농촌 → 농촌	297(9.3)	268(5.5)	368(5.3)
합 계	3,189(100.0)	4,888(100.0)	6,967(100.0)

자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80, 1990.

이처럼 농촌 → 도시로의 흐름이 80년 이후에 급감하게 되는 이유로는 특히 85년 이후에 도시들의 승격이 많아서 (도시 수는 80년에는 40개에서 90년에는 73개로 늘어났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에 반해서 도시 → 도시로의 이동은 1965-70년의 21%에서 1985-90년에는 50.6%로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 도시, 도시 → 농촌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촌 → 도시, 농촌 → 농촌으로의 이동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도시 → 농촌의 흐름은 현재 일부 대도시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는 교외화 현상과 관련하여 장래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도시 - 농촌간의 인구이동의 방향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의 전입, 전출, 순이동을 정리한 것이 <표-3>이다. 표에서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1985-90년 도시지역의 전입과 전출의 양이 1975-80년 보다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입과 전출을 합친 총이동의 수가 75-80년에는 약 600만명 이었으나 85-90년에는 1013만으로 늘어나 1.7배나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농촌지역에서의 전입과 전출은 세 기간중 그리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아 대략 전입은 70만-110만, 그리고 전출은 210만-280만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 표에서 분석한 대로 도시 → 도시로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3> 도시 - 농촌간 순인구이동

	도 시			농 촌		
	전 입	전 출	순이동	전 입	전 출	순이동
1965-70	2,514	1,048	1,466	675	2,142	-1,467
1975-80	3,939	2,096	1,843	949	2,791	-1,842
1985-90	5,856	4,270	1,586	1,111	2,697	-1,586

자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80, 1990.

한편 전입과 전출의 차이인 순이동을 보면 1965-70년에는 147만에서 75-80년에는 184

만으로 증가하였다가 85-9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59만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 나라 도시지역의 순이동 양은 1975-80년을 정점으로 앞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앞으로는 농촌 → 도시로의 이동의 절대량은 줄고 거꾸로 도시 → 농촌으로의 이동의 양은 교외화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3) 시·도간 인구이동

이제는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시·도간의 인구이동을 보기로 하자. <표-4>는 세기간 동안의 시·도간의 인구이동을 전입, 전출, 순이동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서울을 보면 타시·도에서 서울로의 전

<표-4> 시·도간 인구이동

(단위: 천명)

	전 입			전 출			순 이 동		
	65-70	75-80	85-90	65-70	75-80	85-90	65-70	75-80	85-90
서울	1,183	1,232	1,334	28	753	1,379	935	479	-46
부산	307	538	375	127	221	349	180	317	26
대구	-	--	294	-	--	213	-	--	81
인천	--	--	414	--	--	174	-	-	240
광주	--	--	187	--	--	121	-	-	66
대전	--	--	201	--	--	98	-	-	103
경기	344	901	1,457	321	437	726	23	464	731
상원	103	104	124	185	275	300	-82	-171	-176
충북	56	73	122	164	208	190	-108	-135	-68
충남	97	164	135	308	332	327	-211	-168	-192
전북	54	65	83	206	275	268	-152	-209	-185
전남	57	88	140	278	429	440	-221	-341	-300
경북	144	262	244	302	400	454	-159	-138	-210
경남	97	293	359	307	385	370	-210	-93	-11
제주	15	20	28	12	25	33	3	-5	-5

자료: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80, 1990.

입은 1965-70년의 118만에서 1985-90년에는 133만으로 완만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출은 1965-70년의 25만에서 1985-90년에는 138만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순이동을 보면 1965-70년의 94만을 정점으로 1975-80년에는 48만으로 감소하였고 1985-90년에는 5만의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의 전출 초과 현상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와의 이동의 결과로서 1985-90년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전출

은 83만으로 총 서울 전출인구 138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44만으로서 서울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만 39만의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이외에도 타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이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는 시·도로는 인천과 대전이 있다. 즉 서울은 인천에서 6만의 전입자를 받아들이고 16만의 전출자를 내보내 10만의 전출 초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전과는 2만5천의 전입에 3만9천의 전출을 나

타내 1만4천의 전출 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인구를 흡입하여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지적한 서울 대도시권의 형성에 따른 근교지역과 경기도 위성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국 15개 시·도중 최근 1985-90년의 5년간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경기도뿐이다. 그 중에서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순이동량이 두드러져 경기도는 73만, 인천은 24만의 순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두 시점과의 비교가 가능한 부산의 경우 전입은 75-8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반면 전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순이동은 75-80년의 32만에서 85-90년에는 2만6천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입과 전출에서 모두 증가를 보이면서 순이동에 있어서도 65-70년의 2만3천에서 85-90년에는 73만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인구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도중 1985-90년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으로서 30만의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 충남, 전북의 순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고, 경남의 경우만 순이동이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는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서울 대도시권과 마찬가지로 부산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III. 1985-90 인구이동 분석

이제 우리 나라 최근의 지역간 인구이동의 양상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1990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

하기로 한다. 1990년 센서스에는 그 이전의 센서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4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출생지, 5년전(85년)거주지, 1년전(89년)거주지, 현거주지로서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현거주지와 5년전(85년)거주지를 비교하여 인구이동 분석을 하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두 시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분석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그 기간 사이에 일어난 이동을 알아 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85-90년 사이에 두번이상 이동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85년과 90년 두시점만 비교하기 때문에 한번 이동한 것으로만 나타나게 된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이동했으나 85년 원래의 거주지로 다시 돌아간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동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비이동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센서스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문제점 -그 중에서도 특히 귀환이동으로 이동이 상쇄되는 경우- 을 줄이려는 한 방법으로는 이동을 정의할 때 그 공간 범역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동의 공간적 단위는 연구하는 목적과 학자에 따라서 특별(직할)시·도가 될 수도 있고 좀더 줄여서 구·시·군 혹은 읍·면·동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만약 시·도를 이동의 공간단위로 했다면 도내의 시·군간 이동이나 혹은 도외로 이동했다가 다시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귀환한 경우는 이동에서 제외되게 되나, 이동의 공간단위를 시·군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 예를 든 경우도 모두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동의 공간단위를 도의 경우는 시·군으로 하였으며 대도시의 경우는 구로 하는 대신 특별시나 직할시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이동을 정의하였다.

1) 시·도간 인구이동

이제 이와 같이 정의된 우리 나라의 인구이동을 85년과 90년 거주지를 비교하여 각 시·도의 시·부·군·부별로 전입, 전출과 순이동을 정리한 것이 <표-5>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표에서 나타나는 이동자수는 2% 표본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이를 전국적인 이동자수로 파악하려면 50배를 하면 되겠으나 표본비율이 지역마다 다소 상이할 것이므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절대수 보다는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표-5> 시·도, 시·부, 군·부별 인구이동

(단위 : 명)

	전 입	전 출	순 이 동
서울	25,424	26,771	-1,347
부산	6,848	6,525	323
대구	5,749	4,137	1,612
인천	8,054	3,427	4,627
광주	3,669	2,337	1,332
대전	3,849	1,963	1,886
경기군	6,853	8,051	-1,198
시	29,153	15,085	14,068
강원군	1,881	4,325	-2,444
시	2,684	3,268	-584
충북군	990	3,169	-2,179
시	2,698	2,033	665
충남군	1,918	5,287	-3,369
시	1,724	1,894	-170
전북군	845	4,126	-3,281
시	3,643	3,568	75
전남군	1,741	7,320	-5,579
시	2,857	2,770	87
경북군	3,171	7,775	-4,604
시	4,725	4,338	387
경남군	2,613	6,258	-3,645
시	10,361	7,000	3,361
제주군	211	574	-363
시	865	525	340

주 : 이동자수는 2% 표본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수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우선 표에서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이동에서 - 를 보이는 곳은 서울과 각도의 군부이며 강원, 충남의, 경우는 시·부도 - 의 순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분석이 되겠지만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전출초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순이동이 - 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강원과 충남의 경우 시·부에서 전출초과 현상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과 비교적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인천 및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전출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도의 군부에서 전출초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전남군이 가장 크고 다음에 경북군, 경남군, 충남군, 전북군 등의 순서를 보인다.

각도 군부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5개 대도시와 강원, 충남을 제외한 각도의 시·부는 많은 전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순이동의 절대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시·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인천, 경남시·부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아직도 수도권 지역으로 대량의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 즉, 표에서 보면 인천과 경기시·부의 순이동량은 전국 시·군간 이동자의 65.0%로서 전국 이동자의 약 2/3가량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개 대도시의 순이동량을 비교해 보면 도시규모에 비해 부산의 순이동량이 적고 반면에 대전의 경우는 대구나 광주보다도 오히려 많다. 이는 부산의 경우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의 대도시권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주변 위성도시나 근교로 인구가 확산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면 각 도별로 전출자들의 이동목적지는 어디인가? 이제 이를 알기 위해서 도별로 전출자를 중심으로 도내 타 시·군으로의 전출과 다른 도로의 전출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6> 도별 전출자의 도내 및 도외이동

(단위 : %)

	전출자총수	도내전출	도외전출	서울	비고**
경 기	100.0	37.7	62.3	61.2*	인천(14.0)
강 원	100.0	29.5	70.5	29.5	
충 북	100.0	30.9	69.1	28.9	
충 남	100.0	17.3	82.7	30.0	대전(21.3)
전 북	100.0	36.9	63.1	45.0	
전 남	100.0	21.0	79.0	30.5	광주(30.0)
경 북	100.0	28.0	72.0	17.7	대구(38.8)
경 남	100.0	46.7	53.3	16.8	부산(41.7)
제 주	100.0	48.2	51.8	28.8	

주 : * 도외 전출자중 서울 전입자에 대한 비율임

** 도외 전출자중 각 직할시 전입자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우선 표에서 보면 각 도별로 대체로 총전출자의 51-83%는 도외의 다른 시·군으로의 전출로서 같은 도로의 전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도로의 전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는 충남(82.7%), 전남(79.0%), 경북(72.0%), 강원(70.5%)의 순으로 주로 서울을 비롯하여 직할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들이다. 예외적으로 제주를 제외하고는 경남의 경우가 도외전출 비율이 53.3%로 도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경남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에 비해 자체의 인구 흡입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울산, 마산, 창원 등의 대규모 공업단지의 영향이 큰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은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인구를 흡인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각도별로 도외 전출자의 얼마가 서울로 향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보았다.

즉, <표-6>에서 4번째 열은 도외 전출자 중 서울전출자의 비율로서 이를 도별로 보면 경기

도가 6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45.0%), 전남(30.5%), 충남(30.0%), 강원(29.5%) 등의 순서로서 인근에 인구를 흡수할 만한 대도시가 있는가, 혹은 있더라도 서울과 견주어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즉 표에서 비고는 도외 전출자중 각도에 위치해 있는 대도시로의 전출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과 대구는 각각 경남북의 도외전출자의 상당수를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고 있어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비해서 광주의 경우는 비록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 그 기반이 취약하여 전남의 도외 전출자의 30.5%를 서울에 빼앗기고 있다.

또 대전의 경우는 충남의 도외 전출자의 21.3% 밖에 흡수하지 못하여 서울(30.0%)보다 흡인력이 떨어지며 인천의 경우는 대전보다 더 작아 경기도 도외 전출자의 14.0%만을 흡수하

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구가동의 법칙인 두지역간 이동의 양은 두 지역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인구규모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인구를 받아들이는 6개 대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도시들이 어디에서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표-7>은 6개 대도시별로 전입자들의 이출지를 시,도의 시부,군부로 세분하여 총전입자에 대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5개 지역까지 정리한 것이다.

<표-7> 대도시 전입자의 주요 이출지

						(단위: %)
	1	2	3	4	5	총전입자
서울	경기시(23.8)	경기군(10.9)	전남군(6.9)	인천(5.4)	부산(5.2)	25,424
부산	경남군(26.0)	경남시(17.0)	서울(13.7)	경북군(7.0)	대구(5.7)	6,848
대구	경북군(43.1)	경북시(15.8)	서울(9.2)	부산(6.1)	경남군(5.9)	5,749
인천	서울(38.4)	경기시(16.3)	경기군(8.8)	충남군(4.1)	전남군(3.3)	8,054
광주	전남군(53.9)	서울(13.7)	전남시(11.2)	부산(3.4)	경기시(3.0)	3,669
대전	충남군(27.4)	서울(19.6)	충북군(8.4)	경기시(6.5)	충남시(5.5)	3,849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우선 서울을 보면 총전입자의 23.8%가 경기도의 시부에서 전입하였고 다음에 경기도의 군부에서 10.9%가 전입하고 있어 인천까지 합치면 수도권내에서 모두 40%가 전입하고 나머지 60%는 인천, 경기도이외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고 있다. 다른 시,도 중에서는 특히 전남 군부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전입자가 전입하고 있어 각각 총 전입자의 6.9%, 5.2%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남의 군부에서 26.0%가 전입하고 있으며 경남 시부까지 합치면 모두 43%가 경상남도에서 전입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서울에서도 13.7%가 이동하고 있어 두 대도시간의 상호작용이 클 수 있으며 그밖에는 인접 경북의 군부와 대구에서 많은 수가 전입하고 있다.

대구는 경북의 군부와 시부 모두 합쳐서 58.9%가 전입하고 있고 서울, 부산, 경남군부의 순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총 전입자의 63.5%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충남과 전남의 군부가 주요한 전입지로 되어 있다.

광주는 전남 군부에서 53.9%, 시부에서 11.2% 등 총 65.1%를 흡수하고 있어 대도시중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대전은 충남군부(27.4%)와 시부(5.5%)를 합쳐도 32.9% 밖에 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전은 서울에서 총 전입자의 19.6%를 받아들이고 있어 인천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중에서는 서울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의 전입자를 흡수하고 있었다.

2) 수도권의 인구이동

그러면 이제 초점을 수도권으로 맞추어서 수도권 전입자의 이출지를 분석하기로 하자. 먼저 <표-8>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도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수도권내 전입자와 수도권외 전입자의 비율을 정리하였다.

<표-8> 수도권 전입자의 수도권내·외 이동

	(단위: %)		
	전입자총수	수도권내(%)	수도권외(%)
서울	25,424	40.1	59.9
인천	8,054	63.5	36.5
경기시	29,153	72.9	27.1
경기군	6,853	70.2	29.8
합계	69,484	59.5	40.5

주 : *2% 표본자료에 포함된 표본수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우선 표에서 보면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의 각 시·군으로의 전입자 중 59.5%는 수도권내의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것이고 40.5%가 수도권이외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내에서의 인구가동이 수도권외에서의 전입보다 많다. 그런데 수도권내의 전입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의 경우는 수도권외에서의 전입이 60%로 수도권내에서 보다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더 많은 인구를 흡인하고 있었다. 이는 1980년 센서스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대로(최진호, 이종열, 1984)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인구를 흡인하여 수도권내의 근교지역으로 인구를 배출하고 있는"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흥미롭다.

총전입자중 수도권외 전입자의 비율은 인천, 경기군부, 경기시부로 갈수록 낮아져 경기시부의 경우는 27.1%만이 수도권외에서 전입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72.9%)은 수도권내에서 이동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외에서 전입한 총수를 100으로 놓고 수도권의 어느 지역으로 전입했는가 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이 54.2%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이동한 사람의 절반 이상을 받아 들이고 있었고 다음이 경기시부의 28.1%, 인천의 10.5% 등의 순으로 인구가 수도권외에서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수도권외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은 후에 다시 자세히 분석되겠다.

다음에는 수도권외에서 이주해온 전입자만 골라서 이들의 도별 분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9> 수도권 전입자의 도별분포

	(단위: 명, %)	
	N*	%
1. 전남	4,123	14.7
2. 충남	3,805	13.5
3. 전북	3,655	13.0
4. 강원	3,454	12.3
5. 경북	2,627	9.4
6. 부산	2,279	8.1
7. 충북	2,180	7.8
8. 경남	2,169	7.7
9. 대구	1,293	4.6
10. 광주	1,247	4.4
11. 대전	977	3.5
12. 제주	281	1.0
합계	28,090	100.0

주 : *2% 표본자료에 포함된 사례수임.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1985-90년의 5년간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내보낸 도는 전라남도로서 수도권 총 전입자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전남이 수도권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역 자체 인구를 흡입할 만한 유인요인 - 예컨대 대규모 공업단지 등 - 이 부족하여 수도권으로 인구가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충남의 13.5%, 전북의 13.0% 및 강원의 12.3%로서 이중 전북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도권 전입자의 이출지는 수도권의 지역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표-10>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남군부와 부산이 주요한 배출지로서 각각 서울 총전입자의 11.5%, 8.7%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충남군(8.0%), 전북시부(7.4%), 순이다.

<표-10> 수도권외 전입자의 주요 이출지

(단위: %)

	1	2	3	4	5
서울	전남군(11.5)	부산(8.7)	충남군(8.0)	전북시(7.4)	전북군(7.0)
인천	충남군(11.3)	전남군(9.1)	강원군(8.7)	부산(7.0)	강원시(6.8)
경기시	충남군(11.7)	전남군(10.2)	부산(7.9)	강원군(6.9)	전북군(6.3)
경기군	강원군(14.2)	충남군(11.2)	전남군(8.0)	강원시(8.0)	전북군(7.0)
수도권	전남군(10.6)	충남군(9.6)	부산(8.1)	강원군(6.8)	전북군(6.7)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에 반해서 인천, 경기시부의 경우는 모두 공히 충남의 군부에서 가장 많은 전입자를 받아들이고 있어 각 지역 총전입자의 11.3%, 11.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남군, 충남군, 부산, 강원군, 전북군의 순서로서 이들 5개 지역에서 수도권 총전입자의 41.8%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3)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앞에서는 시·군을 인구이동의 공간단위로 해서 우리 나라의 1985-90년 5년간의 이동의 흐름을 분석하였고, 특히 본 연구의 관심지역인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이와 같은 인구이동의 방향에 더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분석하려 한다.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향후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기서는 수도권을 서울, 서울근교, 경기외곽으로 다시 구분해서 각 지역에서의 전입자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수도권의 공간적 범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를 포괄하나 서울과 경기도 외곽지역을 같이 묶어서 보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근교지역을 설정하여 서울대도시권이라는 지리학적인 동질지역을 구상하여 서울, 서울근교, 경기외곽등 수도권을 세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으로의 전입자를 상호 비교하려 한다.

서울 근교지역의 공간적 범역은 필자가 1984년 연구에서 설정한 것을 그대로 원용하였다(최진호, 이종열, 1984). 일반적으로 근교지역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기능적 연계성과 공간적 동질성을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연구에서는 기능적 연계성의 지표로서는 중심도시인 서울과의 통근자 비율과 거리를 사용하였고, 공간적 동질성의 지표로는 서울 주변 군의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등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1980년 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당시 경기도내 6개시와 19개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 거주취업자의 5% 이상이 서울로 통근하고 있는 시·군, 2) 각 시·군 취업기회의 5% 이상을 서울로부터의 통근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군, 3)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45Km 이내의 시·군, 4) 총 취업인구의 60% 이상이 2,3차 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시·군, 그리고 5) 75-

8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이 +로 나타나고 있는 시·군 등을 서울 근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당시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 6개시와 남양주, 시흥, 고양, 광주, 김포 5개군 등 모두 11개 시·군이 근교지역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80-90년 사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90년에는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 기존의 6개시에 새로이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구리, 미금, 하남 등 8개시가 새로 분리되어서 추가되었고 군의 경우는 남양주, 고양, 광주, 김포로 과거의 시흥군이 없어져 4개군이 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말하는 서울 근교지역은 앞에서 든 14개시와 4개군을 의미한다. 한가지 부연해 둘 점은 앞에서 든 동일 기준을 가지고 90년 자료에 바탕해서 근교지역을 설정하면 그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나 당시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10년전의 공간적 범역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먼저 1985-90년 5년간 수도권외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이동자수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모두 약 155만명이다. 이들 수도권 전입자중 53.8%는 서울로 전입하였고 서울근교 지역에는 39.9%. 그리고 나머지 6.3%가 경기도 외곽지역(근교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으로 전입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의 약 94%는 서울과 주변근교지역인 서울대도시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정책의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다 합친 수도권 전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서울 대도시권 지역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표-11>은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들을 그 전입 지역인 서울, 서울근교, 경기외곽 그리고 수도권 전체 등으로 나누어서 그 특성을 비교 요약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가 센서스의 2% 표본자료이기 때문에 실수를 표시했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표에서는 분석에 쓰여진 사례의 실수를 제시하지 않고 비율만 정리하였다.

우선 수도권 전입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전입하고 있으며 수도권내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즉 수도권외에서 서울로의 전입자중 여자의 비율은 52.7%로서 남자보다 많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다소 여자의 비율이 높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한편 연령에 있어서는 수도권내 각 지역에 전입한 이동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서울로는 15-24세까지의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두드러져 서울 전입자의 31.7%가 이들 청년층인데 반해서 근교에는 26.9%, 경기외곽에는 24.6%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청년층의 서울 전입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교육과 관련된 이동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자녀교육 때문에 이동하는 비율이 13.2%로서 직장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이동 이유로 나타나고 있었다(국토개발연구원, 1992).

이와는 달리 서울근교지역에는 특히 25-34세까지의 연령층의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근교지역 전입자중 이들 연령층 이동자의 비율은 38.1%로서 서울의 31.9%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서울거주자의 근교지역 이주와 비슷한 동기로서(최 진호, 이종열, 1984) 이들 결혼 초기의 젊은 층은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서울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 값이 싼 근교지역에 많이 정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고학력 층이 서울과 근교지역으로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입자중 전문대이상 교육을 받은 고학력층 비율은 서울이 23.7%, 근교가 17.7% 그리고 경기외곽이 13.8%로서 서울 전입자중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전

입자의 연령별 분포와도 관련된 것으로 젊은 층의 교육목적의 이동이 전입자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한 취업기회가 서울에 많은 것에도 기인할 것이다.

<표-11>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단위 :%)			
구	분	서울	서울근교	경기외곽	수도권
성	남	47.3	47.7	47.4	47.5
	여	52.7	52.3	52.6	52.5
연령	14세 이하	15.0	15.6	17.8	15.4
	15-19세	11.1	8.8	9.5	10.1
	20-24세	20.6	18.1	15.1	19.2
	25-29세	20.3	23.7	23.8	21.9
	30-34세	11.6	14.4	13.2	12.8
	35-39세	6.7	6.5	7.0	6.6
	40-44세	4.0	3.0	2.8	3.6
	45-49세	2.4	2.2	2.9	2.3
	50-54세	2.0	1.8	1.8	1.9
	55-59세	1.7	1.9	1.4	1.8
	60세 이상	4.5	4.0	4.6	4.3
교육정도	불취학	5.3	6.1	7.9	5.8
	국민학교	16.0	17.6	20.7	16.9
	중학교	14.7	14.5	18.8	14.9
	고등학교	40.3	44.0	38.9	41.7
	전문대	3.9	4.0	2.6	3.8
	대학교	18.5	13.0	10.6	15.8
	대학원	1.3	0.7	0.6	1.0
혼인상태	미혼	45.3	35.4	30.3	40.4
	유배우	48.7	59.3	64.9	53.9
	사별	5.2	4.8	4.2	5.0
	이혼	0.8	0.5	0.6	0.7
경제활동상태	유업자	55.3	57.6	57.1	56.3
	무업구직자	4.0	2.9	1.3	3.4
상태	가사	24.1	29.6	32.7	26.8
	학생	13.0	7.0	6.3	10.2
	기타	3.6	2.9	2.5	3.3

산 업	농·림·어업	0.3	1.0	7.5	1.0
	광업	0.1	0.1	0.1	0.1
	제조업	37.8	52.3	52.0	44.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6	0.5	0.9	0.6
	건설업	7.5	8.0	5.9	7.6
	도소매업	24.7	17.4	13.5	21.1
	운수창고업	4.0	3.0	2.2	3.5
	금융보험업	7.9	4.5	1.5	6.1
	서어비스업	16.9	13.1	16.3	15.4
직업	전문·기술	6.8	5.5	7.3	6.3
	행정 및 관리	1.4	1.2	0.4	1.3
	사무	25.2	20.2	10.1	22.2
	판매	18.7	13.6	6.2	15.8
	서어비스	10.5	8.6	11.9	9.8
	농림·어업	0.2	1.0	7.7	1.0
	생산·운수·장비·노무	37.3	50.0	56.5	43.7
종사상 지위	사업주	3.4	3.1	2.5	3.2
	자영자	9.0	8.8	8.7	8.9
	가족종사자	2.3	2.2	3.8	2.4
	봉급근로자	85.3	85.8	85.0	85.5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전입자들의 혼인상태를 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서울은 미혼 전입자의 비율이 45.3%나 되는데 비해서 근교는 35.4%, 경기외곽은 30.3%로 서울보다 월등히 낮다. 이것 또한 전입자들의 연령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인 미혼 전입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수도권 전입자들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떠한가? 표에서 경제활동 상태는 크게 경제활동인구를 유업자와 구직자로 구분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학생,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수도권 전입자중 취업자의 비율이 서울에서 서울근교나 경기외곽에 비해서 낮다는 점이다. 반면 서울전입자중에는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 4.0%가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어 근교(2.9%)나 경기외곽(1.3%) 보다 구직자가 많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중 학생의 비율이 서울 전입자는 13.0%로서 서울근교의 7.0%나 경기외곽의 6.3%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서울 전입자중에는 대학등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젊은 학생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전입자중 취업자의 비율은 56.3%로서 우리 나라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49.9%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과 근교지역에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어 직업과 관련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수도권 전입자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어떤 산업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우선 서울 전입자의 경우 수도권내 다른 지역전입자들에 비해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는 24.7%로 근교의 17.4%나 경기외곽의 13.5%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서울 전입자들이 서울근교나 경기외곽 전입자들에 비해서 매우 낮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도권내 전입자들 간의 지역간 차이는 지역간의 산업구조의 차이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1990년 서울과 경기도(인천 포함)의 취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각각 29.7%와 40.0%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보다 서울근교와 경기외곽을 합친 경기도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서울거주 취업자의 29.7%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85-90년 전입자는 37.8%가 제조업 종사자이며, 근교와 경기외곽의 경우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취업자의 40%가 제조업 종사자인데 비해서 전입자는 5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규 전입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들은 서울, 근교, 경기외곽을 불문하고 모두 제조업 부문에 크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와같은 결과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의 제조업 신규 입지와 증설을 억제하여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신규 전입자의 주요 직업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제조업의 억제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전입자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생산.운수장비.노무 등 제조업 및 단순노동자의 비율은 근교나 경기외곽에 비해 매우 낮다. 즉 사무직의 경우는 서울(25.2%)과 근교(20.2%)에서 높고 경기외곽은 10.1%로 낮으며 판매직의 경우도 서울(18.7%), 근교(13.6%)에 비해서 경기외곽은 그 절반도 안되는 6.2%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기외곽은 농림어업의 비율이 높고 또 생산.운수장비.노무직의 경우 서울(37.3%)보다 매우 높아 56.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근교(50.0%)보다는 약간 높을 뿐이다. 따라서 앞의 산업분포에서 보았듯이 수도권 전입자중 근교나 경기외곽 이주자는 반이상이 제조업 부문에 취업하고 있었다.

한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지역간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대체로 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85.5%를 보여 압도적으로 많으며 자영자가 그 다음으로 8.9%를 보이고 있다.

4) 수도권 전출자의 특성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85-90년 사이에 수도권 밖으로 이동해 나간 전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절대수에 있어서 전입자와 전출자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다 수도권 밖으로 전출해 나간 이동자가 전입자의 1/2이며 서울 근교에 있어서는 전출자가 전입자의 28%, 그리고 경기외곽은 전입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의 전출자를 100으로 했을 때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서의 전출자가 63.2%, 서울근교가 26.1% 그리고 경기외곽이 10.6%로서 전입자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해서는 서울과 경기외곽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전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여자의 비율이 5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입자의 경우 여자가 52.5%인 것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서의 전출자중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한편 연령에 있어서는 수도권 전체 전출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5-29세가 2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34세의 20.2% 그리고 14세 이하의 19.7%의 순이다. 그런데 앞에서 기술한 전입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25-29세였고 그 다음이 20-24세로 연령분포에 있어서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5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지역별 연령분포의 차이를 보면 크게 보면 서울과 서울근교는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외곽의 경우는 14세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들 두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근교나 경기외곽과 다른 점은 60세 이상의 노령층의 비율이 4.3%로 근교나 경기외곽에 비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또 지역별로 전입자의 연령분포와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15-19, 20-24세 연령층에서 전입의 경우보다 매우 낮으며 40세 이상에서는 전입자의 연령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서울의 경우 전입자의 연령층이 전출자보다 낮는데 주로 학생층의 전입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14세 이하의 경우는 수도권의 세 지역 모두에서 전출자의 비율이 전입자의 경우보다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출자는 전입자에 비해서 유아연령층의 비중은 높고 15-24세의 젊은 청년층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정도는 전체 분포에 있어서는 전출자와 전입자간에 거의 비슷하다. 양자 모두 고등학교 수준이 가장 많고 다음이 국민학교, 대학교의 분포를 보인다. 비율에 있어서 전출자와 전입자의 차이는 전출자의 경우에 있어서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전입자의 경우보다 높

다는 것이다. 즉, 수도권 전출자의 경우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20.6%인데 비해서 전입자의 경우는 16.8%로 전출자 보다 낮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근교지역에서 특히 그러한데 서울의 경우 대학이상 전출자의 비율은 23.8%로 전입자의 19.8% 보다 높고, 근교의 경우도 전출자는 16.9%이고 전입자는 13.7%이다.

한편 지역별로 교육수준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로부터의 전출자에 있어서 고학력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근교이며 경기외곽의 경우는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출자의 교육수준이 전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장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에 다소 희망적임을 보여준다. 즉 대체적으로 그 동안 수도권 특히 서울로부터의 전출은 서울에서의 적용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리라는 추측을 해 왔는데 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서 고학력자들의 수도권 외로의 선별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인구 재배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전출자의 경우 전입자에 비해서 미혼의 비율이 낮고 그만큼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아진 차이를 보여준다. 즉 전입자의 경우는 미혼이 40.4%였으나 전출에 경우는 21.1%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앞의 연령분포의 차이에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출자들의 평균 연령이 전입자에 비해서 적어도 5세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전출자의 혼인상태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근교지역이 서울이나 경기외곽 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기혼의 비율이 낮아 이채롭다.

경제활동 상태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출자

<표-12> 수도권 전출자의 특성

		(단위 :%)			
구 분		서 울	서울근교	경기외곽	수 도 권
성	남	48.1	49.5	49.2	48.6
	여	51.9	50.5	50.8	51.4
연 령	14세 이하	18.3	21.5	24.0	19.7
	15-19세	3.6	5.0	2.8	3.9
	20-24세	9.0	10.0	9.3	9.3
	25-29세	23.9	20.8	23.6	23.1
	30-34세	20.4	20.6	18.6	20.2
	35-39세	10.4	10.9	10.2	10.5
	40-44세	4.5	4.0	3.1	4.2
	45-49세	2.3	2.0	2.6	2.3
	50-54세	1.6	1.4	1.5	1.5
	55-59세	1.6	1.1	1.7	1.5
	60세 이상	4.3	2.6	2.6	3.7
교육 정도	불취학	6.5	7.8	7.6	7.0
	국민학교	17.4	19.5	25.4	18.8
	중학교	14.7	15.7	16.9	15.2
	고등학교	34.2	36.2	36.3	35.0
	전문대	3.3	3.8	2.6	3.4
	대학교	21.3	15.6	10.3	18.6
	대학원	2.5	1.3	0.9	2.0
혼인상태	미 혼	20.8	23.5	17.6	21.1
	유배우	73.9	71.7	78.2	73.8
	사 별 이 혼	4.2	3.8	3.4	4.0
		1.1	1.1	0.8	1.1
경제활동 상태	유업자	51.6	52.4	55.6	52.1
	무업구직자	3.4	3.3	2.7	3.3
	가 사 학 생	35.4	32.6	34.3	34.6
	기 타	6.7	9.1	4.8	7.1
		2.7	2.6	2.5	2.7
산 업	농·림·어업	7.8	5.7	18.7	8.4
	광업	0.7	1.4	0.6	0.9
	제조업	26.2	36.7	32.6	29.6
	전기·가스 및 수도업	1.4	0.6	0.6	1.1
	건설업	10.7	10.0	10.8	10.5
	도소매업	24.1	22.8	15.7	22.9
	운수창고업	4.8	4.8	3.9	4.7
	금융보험업	6.3	3.8	3.5	5.3
	서어비스업	18.0	14.2	13.6	16.6
직 업	전문·기술	8.6	6.5	4.8	7.6
	행정 및 관리	4.2	2.8	2.6	3.7
	사 무 판 매	20.6	16.7	17.3	19.2
	서어비스	16.5	17.7	12.0	16.3
	농림·어업	11.2	9.8	8.0	10.5
	농림·어업	8.3	5.3	17.9	8.6
	생산·운수·장비·노무	30.6	41.2	37.5	34.0
종사상 지 위	사업주	7.0	3.7	3.3	5.7
	자영자	15.8	15.1	20.3	16.1
	가족종사자	7.1	5.4	10.9	7.1
	봉급근로자	70.1	75.8	65.5	71.1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의 경우 전입자에 비해서 유업자와 학생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가사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진 특징을 보인다. 특히 학생의 경우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낮아져 전입자의 경우 학생비율이 13.0% 였던것이 전출자의 경우에는 6.7%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교육목적의 전입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전출의 경우는 교육목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전출자에 있어서 가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미혼의 여성 취업자가 결혼과 더불어 거주지를 옮겨서 가사 종사자로 변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자의 산업분포를 전출자와 전입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전출자의 경우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대폭 높아지고 반면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이 두드러진다. 즉 전출자의 1차 산업 종사비율이 8.4%로서 전입자의 1.0%와 크게 차이가 나며 제조업의 경우는 전출자가 29.6%로 전입자의 40.0% 보다 상당히 낮다. 이는 수도권에 제조업의 기회가 편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제로 최근 80-89년 사이 전국의 총 제조업 고용기회 증가분의 54.7%가 수도권에서 증가한 것이었다 (최병선, 1991).

한편 지역별로 전출자의 취업구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전입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서울로부터의 전출자의 경우는 전입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나 서어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보여 이동 전 거주지의 산업구조상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출자의 직업 분포는 전입자에 비해서 농림.어업직은 대폭 그리고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의 비중은 다소 높은 반면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의 비중은 대폭 줄어들었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교육정도가 높은층의 전출을 반영하여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의 비율이 다소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밖에 전출지역별로 직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전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종사상의 지위를 비교해 보면 전출자의 경우에 봉급근로자의 비율이 전입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그 대신 사업주, 자영자, 가족봉사자의 비율 모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출자의 경우에 전출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늘어 자영자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국내 인구가동양상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성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나 최근 1985 - 90년에는 이동율이 24.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시 도내 이동보다는 시 도간의 이동이 더 많다. 이동의 흐름에 있어서는 과거의 농촌 → 도시의 방향에서 도시 → 도시로의 흐름에 점차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순이동량은 1975 - 80년 기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였다.

시 도별로 구분해서 이동을 보면 서울의 순이동은 1965 - 70년 기간 이후 감소하다가 1985 - 90년에는 최초로 -를 기록해 인구가동으로 인구를 타지역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최근 5년간 인구가동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경기도 뿐인데 경기도의 순이동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었다. 반면에 이동으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하는 도는 전남 경북 충남 등

의 순이었다.

시 구간 이동을 도내전출과 도외전출로 구분하면 도외전출이 도내전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히 충남, 전남, 경북에서 그러하다. 5개의 직할시중에서 대도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부산과 대구는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인구를 상당수 흡수하고 있으나 대전, 광주, 경주는 오히려 더 많은 인구를 서울에 빼앗기고 있었다.

한편 6개 대도시들은 그 주변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어 인구이동에서 거리가 중요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은 거리에 관계없이 이들 대도시에 상당한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인구를 내보내고 있는 도는 전남으로서 전체 수도권 전입자의 14.7%가 전남에서 이입했으며, 그 다음이 충남, 전북, 강원 순으로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출하고 있었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의 54.2%는 서울로, 28.1%는 경기시부를 향하고 있어 서울은 수도권외에서 인구를 받아들이는 관문이 되고 있다. 서울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내는 지역은 전남군부이며 다음에 부산, 충남군부의 순이다.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은 수도권을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서울, 근교, 경기외곽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때 근교에는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주변의 14개 시와 4개 군이 포함되었다. 1985 - 90년 5년간 수도권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이동자는 모두 155만명으로 그중 53.8%는 서울로, 근교로는 39.9%가 전입해와 수도권 전입자의 94%가량은 서울 대도시권으로 전입하였다.

수도권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이 전입하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서울 전입자가 근교나 경기외곽 전입자보다 젊다. 또 교육

정도는 서울 전입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상태는 서울 전입자에 있어서 미혼의 비율이 수도권내 다른지역 보다 높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서울은 유업자의 비율은 낮은 반면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유업자 중에는 도소매업과 금융, 보험 그리고 서어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한편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들은 제조업 부문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5 - 90년 5년간 수도권에서 수도권외로 이동해 나간 전출자 중 63.2%는 서울에서, 26.1%는 근교에서 전출해 전출자의 89.3%가 서울 대도시권에서 전출하였다. 수도권에서의 전출자는 전입자보다 평균적으로 5세 가량 나이가 많으며 교육정도는 전출자와 전입자간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서울대도시권에서는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오히려 더 많아 흥미롭다.

전출자는 전입자보다 미혼의 비율이 낮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유업자와 학생의 비중은 낮고 가사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또 전출자중에는 전출후 농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꽤 많으며(8.4%),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전입자보다 낮다.

이제 본 인구이동 분석결과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첫째는 수도권 정책의 대상권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구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서울을 포함한 서울대도시권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행정의 편의만을 위해서 기존 행정구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수도권 문제의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광역행정을 위해서도 공식적으로 대도시

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동안의 수도권 분산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집중억제 노력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이동분석에서 밝혀졌다. 즉, 서울, 근교, 경기외곽 모두에 걸쳐서 전입자들은 주민들보다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어 제조업이 이들을 유인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할 제조업 부문과 그렇지 않아도 될 부문을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조업 분산정책이 필요하겠다.

셋째, 서울에서 수도권외로의 전출자중에서 대학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당수 있어 지방에 인구정착 여건이 마련된다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분산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산시책의 역점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억제에 두기 보다는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인구분산의 기반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에 둔다면 고급인력

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60, 66, 70, 75, 80, 85 인구센서스 보고서
-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 수도권정책부문」, 1992.
- 최병선,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대책",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1991.
- 최진호, 이종열, "서울 근교지역 교외화의 성격과 특징", 국토연구 3, (1984), pp24-52.
- 통계청, 「지역간인구불균형분포의 원인과 결과」, 1993.
- ,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1992.

《Abstract》

Changing Patterns of Internal Migration of Korea and Population Movement into the Capital Region.

Jin Ho Choi*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nges in internal migration patterns during 1960 – 1990 period, and to analyze population movement to and from the Capital Region. The overall mobility rate of the whole Korean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1960s, and reached to 24.6% in 1985 -- 90 period.

The most interesting changes in the migration pattern is that Seoul lost its population through migration during 1985 – 90, mainly due to heavy outmigration to Kyonggi province.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to the Capital Region reveals that those moved to Seoul are more likely to be young, better educated, never married and engage in service sector in comparison with migrants moved to the suburban districts and the outlying Kyonggi province. However, on the whole migrants moved to the Capital Region are overrepresented in manufacturing sector, which suggests that mo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control the growth of manufacturing sector in the Capital Region is called for.

* Professor, Ajou University